

15세기 국어에서의 영변화

이지영*

1. 서론

본고¹⁾는 15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명사, 부사, 동사, 형용사의 영변화²⁾에 대한 기술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영변화가 중세국어 시기에 분명히 존재하는 단어형성의 한 유형임을 인식하고 단어형성의 과정에서 영변화의 위치를 분명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본고는 15세기의 자료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명사-동사’, ‘동사-부사’, ‘형용사-부사’, ‘명사-부사’, ‘명사-관형사-부사’, ‘부사-관형사’ 간의 영변화로 다루어진 예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국어에서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의미상의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상이한 통사범주로 기능하는 현상은 주지의 사실이다.

* 학부 과정 4년

- 1) 본고는 1997학년도 학부졸업논문으로 작성된 것이다. 원래의 원고에 약간의 손질을 가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 2) 이는 영접미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고의 결론과 관계 있는 용어이다. 아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편의상 논의 이전에 쓰고 있다.

영변화의 예를 다루면서 최현배(1975)는 '씨의 몸바꿈'이라 하고, 홍기문(1947)은 '품사의 통용'이라 하고 있는데, 이들의 논의가 아직 품사 분류상의 단계에 머물러 단어형성의 관점에서 영변화를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은 송철의(1992: 266~67)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기문(1972)는 단어형성을 다루면서 영변화를 단편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기원적으로 국어의 동사어간이 어미와 유리될 수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암시하고 있다. 심재기(1990)은 어휘형성의 한 기제로 영변화를 설정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운소적 요소를 배제한 형태만을 영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허웅(1975)는 영변화를 어기와 '풀없는 가지'의 결합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이것은 영접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고영근(1987), 송철의(1990), 양정호(1991) 등과 일치한다. 이와는 달리 구본관(1996)은 영접사를 인정하지 않고 영변화를 비접사파생으로 간주한다. 김창섭(1990)은 현대국어의 영변화 유형들을 검토하면서 이들을 의미전어로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변화의 예들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로서 이승욱(1967, 1974)는 동사어간의 유리 가능성에 관한 이기문(1972)의 가설을 전제로 명사, 동사어간 그리고 부사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현희(1996)은 기존의 연구에서 영변화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예를 성조와 단어 구조의 분석을 통해 영변화의 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15세기 국어의 단어형성 과정 안에서의 영변화의 위치에 대해서 논의하고, 영변화의 분석 기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세운 기준을 바탕으로 영변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들을 적극적인 영변화와 소극적인 영변화로 나누어 각각의 예를 분석, 검토한다. 결론인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된 문제들을 제시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 인용된 자료의 목록과 약호이다. 대부분 15세기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5세기 이후의 자료 중에서도 논의에 필요한 경우는 인용하였다.

훈민-새종어제훈민정음(1448)	용가-용비어천가(1447)
석보-석보상절(1447)	월곡-월인천강지곡(1447)
월석-월인석보(1459)	능엄-능엄경언해(1461)
법화-법화경언해(1463)	선집-선종영가집언해(1464)
반야-반야심경언해(1464)	원각-원각경언해(1465)
구방-구급방언해(1466)	목우-목우자수심결(1467)
몽산-몽산법어언해(1467)	내훈 초-내훈(1475)
두해 초-두시언해 초간본(1481)	삼강-삼강행실도(1481)
남명-남명집언해(1482)	구간-구급간이방(1489)
번소-번역소학(1518)	소언-소학언해(1586)

2. 영변화의 기술과 분석의 기준

2.1. 단어형성 과정 안에서의 영변화의 위치

단어형성의 과정에서 영변화로 보이는 예들을 설명하는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영접사를 인정하고 영변화의 예들을 실질적 접사가 아니라 영접사에 의한 파생으로 보는 것이다.³⁾ 이러한 입장에서는 파생을 접사에 의한 파생과 접사에 의하지 않은 파생으로 나누고 영변화는 접사(영접사)에 의한 파생으로, 내적변화는 접사에 의하지 않은 파생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영접사라는 존재는 접사의 일반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안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어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과 가지고 있는데, 음성적 실체가 없는 영형태가 파생접사에 요구하는 제약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는 성조가 다른 영변화의 짝을 기술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성조와 같은 운소적 요소는 영접사 파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⁴⁾ 성조의 차이를

3) 이러한 입장은 송철의(1992), 양정호(1991) 등에서 볼 수 있다.

보이는 영변화의 짝을 내적변화로 다루기도 한다.⁵⁾

그러나 전자는 중세국어에서 성조의 차이에 의한 의미의 차이가 무시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후자는 내적변화가 통사범주나 통사자질을 바꾸는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의 두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 때문에 성조의 차이를 보이는 영변화의 예들까지도 영접사 파생의 예로 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도 영변화의 예들에서 보이는 성조의 차이들을 파생 규칙과 같은 정밀한 규칙으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접사를 인정하지 않는 두번째 입장은 영변화에 의한 파생을 내적 변화, 중첩과 함께 접사에 의하지 않은 파생으로 본다. 이러한 입장은 구본관(1996)에서 제시된 것으로 '여기가 하나인 경우'를 파생으로 본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파생을 이처럼 '여기가 하나인 경우'로 보는 입장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데,⁶⁾ 예를 들면 파생어와 단일어와의 구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파생은 실질적 접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영변화나 내적 변화는 파생이나 합성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단어형성 과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파생을 '여기와 접사의 결합'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국어 파생형태론의 논의와 다르지 않다. 본고의 논의는 이 세번째 해석 가능성에 입각해 있다.

2.2. 영변화의 분석 기준

송철의(1992)는 영변화의 짝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 어떤 두 어휘항이 ①형태상으로 동일하고, ②의미상으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③통사범주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 기준은 영변화를 다루는 이후의 연구들에서 전제로 삼고 있는데, 실제로 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기준은 모호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첫번째 기준인 형태상의 동일성과 세번째 기준인 통사범주상의 차이

4) 송철의(1992: 274~275)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밝히고 있다.

5) 양정호(1991: 9)에서 이와 같은 입장이 나타나 있다.

6) 구본관(1996: 25)도 파생을 '여기가 하나인 경우'로 보았을 때 다른 범주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기는 하다.

가 그러하다.

우선 형태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기준을 살펴보자. 중세국어에서는 의미상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통사범주가 서로 다른 예들이 성조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신-신다, 띄-띄다' 등이 그 예인데 형태상의 동일성이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예들은 성조의 차이가 있으므로 영변화의 예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예들은 파생관계⁷⁾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더욱이 이들을 영변화의 예에서 제외한다면 성조의 차이를 보이지만 영변화의 다른 기준들은 충분히 만족시키는 위와 같은 예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양정호(1991)에서는 이러한 예들을 내적변화의 예로 다루고 있으나 앞의 2.1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내적변화는 주로 의미의 차이, 특히 어감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지, 통사범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조의 차이만을 보이는 영변화의 짝들을 내적변화로 다루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인다.

형태상의 동일성과 관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영변화의 짝이 분명해 보이지만 어간 말음의 형태음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굿- 굿다'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 (1) ㄱ. 伏羲 굿 그쉬 사름 뵈며(伏羲 | 畫之하야 以示人하며) (법화 3: 156)
- ㄴ. 소노로 三軍人 양즈뵈 굿어 뵈뵈다(手劃三軍勢) (두해 초 22: 33)
- ㄷ. 字人 그슬 모로메 고르고 正히 하며(字劃을 必楷正하며) (내훈 초 1: 26)
- ㄹ. 글즈 굿 그쉬뵈 모로메 반독반독이 정히 하며(字畫을 必楷正하며) (번소 8: 16)
- ㅁ. 글긋 그슬 반드시 반독하고 바르게 하며(字畫을 必楷正하며)(소언 5: 96)

(1ㄱ), (1ㄴ), (1ㄹ)은 동사 '굿-'의 예이다. 이 '굿-'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굿-'으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긋-'으로 나타난다. (1ㄷ), (1ㅁ)은 명사 '긋'의 예인데, 명사의 경우는 모음 어미 앞에서도 '긋'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명사 '긋'과 동사 '긋다'는 어간 말음의 형태음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변화의 기준인 형태상의 동일성이 엄밀하게 적용된다면

7) 여기서의 '파생관계'는 2.1에서 정의한 '파생'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와 접사의 결합'이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기에서 도출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 예는 영변화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긋-긋다’는 성조도 평성으로 일치하며 의미도 ‘劃/畫’으로 일치하고 있다. 명사와 동사의 어간 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 예는 영변화의 분명한 예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본고는 영변화의 첫번째 기준인 형태상의 동일성을 좀더 확장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본고는 의미적 관련성이 있고, 통사범주가 다르다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예들 중에서 영변화의 짝으로 생각되는 예들을 ‘적극적인 영변화’와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하기로 한다. 전자는 형태와 성조가 완전히 동일한 유형이고, 후자는 어간 말음의 형태음소가 다르거나 성조가 다른 유형이다.

통사범주 상의 차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건을 품사 범주와 관련시킨다면 품사 분류의 기준에 따라 영변화의 대상이 되는 예가 달라진다는 점이다.⁸⁾ 이러한 점은 구분관(1996: 46)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그에 의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의 영변화 관계는 체언이라는 더 큰 범주로 묶을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관형사와 부사의 영변화 관계는 수식언이라는 공통성에 의해서, 관형사와 대명사의 영변화 관계는 체언 수식의 기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

통사범주의 차이라는 기준이 영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논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혼란은 영변화에 있어서의 통사범주라는 기준을 단지 품사 분류 상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변화의 짝에서 볼 수 있는 통사범주의 차이를 기본적으로 대통사범주⁹⁾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관형사는 일반적으로 단어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하여 영변화의 예로

8) 영변화를 다루는 대부분의 논의에서 통사범주의 변화를 품사상의 변화로 보고 있다.

9) 고영근(1993)에서는 품사를 크게 큰범주, 작은범주, 바깥범주로 나누고 큰범주에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가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 대통사범주라 하는 것은 이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영변화의 범위에서 관형사를 배제한 것이 품사로서의 관형사의 위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단어형성 과정에서 관형사는 명사나 동사, 부사와는 다르게 행동한다는 점을 주목한 것일 뿐이다.

인정하지 않는다.¹⁰⁾ 영변화의 조건인 통사범주의 차이라는 기준을 ‘대통사범주 중에서 단어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들 사이의 변화’만으로 제한하면, 대통사범주의 하위부류간의 변화는 영변화의 예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동사와 형용사의 통용이나 능격동사류는 영변화로 볼 수 없으며,¹¹⁾ 명사와 수사의 통용도 명사의 하위범주 간의 차이이므로 영변화로 볼 수 없다.

그런데 영변화의 기준인 통사범주의 차이를 위의 논의대로 재정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관형사, 명사, 부사 간의 영변화나 관형사, 부사 간의 영변화로 해석한 예들이다. 본고는 영변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형사들이 가지는 명사와의 공통성에 주목하려고 한다. 즉 관형사는 불변어라는 점에서 명사와 일치하며, 뒤의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도 명사(특히 대명사)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명사와 관형사의 관계는 영변화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는 관형사와 관련이 있는 영변화의 유형 중에서, 관형사, 명사, 부사 간의 영변화는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와 비슷한 유형으로 본다. 즉 이 관계는 관형사로 보이는 유형들이 명사와의 공통성에 의해서 함께 묶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형사와 부사의 영변화로 해석되어 온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휘들의 분석을 통해 영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고 본다.

관형사, 명사, 부사 간의 영변화는 3.1.5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관형사와 부사 간의 영변화로 해석되어 온 예중에서 ‘진딧’을 살펴보기로 한다.

(2) ㄱ. 乃終내 진딧 업수미 아니니 (월석 1: 36)

ㄴ. 眞金은 진딧 金이라 (월석 7: 29)

10) 양정호(1991)에서도 관형사가 일반적으로 단어형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요소라는 점에 근거하여 관형사가 개입된 영변화의 예를 영변화에서 제외시키고, 관형사와 다른 부류와의 영변화로 보이는 예를 품사의 통용으로 보고 있다.

11) 비록 현대국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김창섭(1990)은 능격동사의 예들은 자동사·타동사의 미분화 동사로 보고, 형용사의 자동사화나 자동사의 형용사화를 恒常的 관계에 기반한 환유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동사의 하위부류 간의 영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의 입장과 일치한다.

ㄷ. 진뎃 血蠅와 ㅎ다가 업거든 紫碩을 그 감새 쓰라(眞血蠅如無碩代)
(구방 하: 90)

(2ㄱ)의 '진뎃'이 형용사의 명사형을 수식하므로 부사라고 볼 수도 있다.¹²⁾ 이러한 해석의 입장에서는 (2ㄱ)의 구조를 [[[진뎃 [없]]움]이]로 보게 된다. 그러나 본고는 (2ㄱ)의 구조를 [진뎃 [업숨]이]로 보아 (2ㄱ)의 '진뎃'을 형용사의 명사형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해석하고자 한다. (2ㄴ), (2ㄷ)은 '진뎃'이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이는 예이다. 그러므로 '진뎃'은 관형사와 부사가 영변화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로 쓰이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영변화의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통사적 조건: 대통사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단어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간의 변화만을 인정한다.
- ② 의미적 조건: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③ 형태적 조건: 형태와 성조가 일치하는 유형은 '적극적인 영변화'로, 어간 말음의 형태음소가 다른 유형이나 성조가 다른 유형은 '소극적인 영변화'로 본다.¹³⁾

2.3. 영변화의 방향

영변화의 방향 문제는 영접사를 인정하여 영과생으로 보는 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영변화로 보는 입장에서도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논의에서 영변화의 방향을 일반적인 단어형성 과정에 일치시키려 한다. 단어형성 과정에서 영변화가 가지는 특이성은 접사의 유무와 관련된 것이지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영변화의 방향을 일반적인 단어형성 과정과 일치시키려 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영변화의 방향 문제는 쉽게 속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본고에서의 영변화의 방향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논의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명사와 동사 어간의 경우에는 국어가 기원적으로 명사문이었다는 가설(이기문

12) 고영근(1987: 141~42)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13) 형태적 조건은 의미적 조건과 통사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들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72)를 전제로 명사에서 동사 어간이 도출되었다고 본다. 부사는 명사나 동사, 형용사에 비해서 단어형성 과정의 입력형으로서의 쓰임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사가 관련된 영변화에 있어서 부사는 도출형인 것으로 파악한다. 즉 명사에서 부사가 영변화하였고, 동사나 형용사에서 부사가 영변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3. 영변화의 유형

3장에서는 2.2에 제시한 영변화의 기준에 의하여 예를 분류하고 검토한다. 우선 통사적 조건에 따라 영변화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다시 형태적 조건에 따라 ‘적극적인 영변화’와 ‘소극적인 영변화’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1. 명사와 동사의 영변화

명사와 동사의 영변화는 명사에서 동사가 나온 것으로 본다. 이 유형의 영변화는 적극적인 영변화와 소극적인 영변화가 있다.

3.1.1. 적극적인 영변화

먼저 ‘품-품다’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3) ㄱ. 늘구메 다드라 戎衣 | 풀 조브니 도라와 쉬유메 치윳 비치 김도다(垂老戎衣窄 歸休寒色深) (두해 초 10:42)
 ㄴ. 글위를 구퍼 보내니 푸매 ㅁ득한 조헌러라(書枉滿懷賤) (두해 초 20:17)
 ㄷ. 상네 姦曲고 모디로말 푸맏노 전초로(常懷姦虐故로) (농업 8:116)

명사 ‘품’과 동사 ‘품다’의 성조는 ‘거성’으로 일치한다. 의미는 ‘懷’로 명사와 동사가 일치한다. 물론 동사의 의미는 명사의 의미에 비해서 [+동작성]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명사와 동사의 통사범주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ㄱ), (3ㄴ)은 명사의 예이고, (3ㄷ)은 동사의 예이다.

다음은 ‘너출 - 너출다’의 예이다.

- (4) ㄱ. 땀 기르미 업거늘 버거 너추렛 여르미 나니 (월석 1: 43)
 ㄴ. 퍼덧는 너추리 물곤 모술 뿃들엿도다(滋蔓匪清池) (두해 초 15: 8)
 ㄷ. 또 엿데 榜嚴에 지리히 너출애 흐시리오(復何枝蔓於榜嚴哉시리오) (농업 1: 19)
 ㄹ. 藍田^ㅅ 두둑과 굴형에 존 藤草 | 너추렛도다(藍田丘壑蔓寒藤) (두해 초 16: 4)

명사 '너출'과 동사 '너출다'는 '평거'의 성조형을 보인다. 의미는 '蔓'으로 서로 일치한다. (4ㄱ), (4ㄴ)은 명사의 예이고, (4ㄷ), (4ㄹ)은 동사의 예이다.

다음은 '되-되다'의 예이다.

- (5) ㄱ. 카은 되오 카는 마리라 (월석 9: 7)
 ㄴ. 厄는 썰로 밍ᄃ론 수을 먹는 그르시니 네 되 드느니라 (삼강 충 19)
 ㄷ. 度는 기리 견주는 거시오 량은 하며 겨구물 되는 거시라 (월석 9: 7)
 ㄹ. 주를 다룬 더 옮겨 터 되더니 (석보 6: 36)

명사 '되'와 동사 '되다'는 성조가 '거성'으로 일치한다. 명사의 의미는 '양을 측정하는 기구나 단위'이지만 동사의 의미는 '측정하다, (치수를) 재다'이다. 동사가 "되"라는 기구를 가지고 측정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거기에서 더 확장되어 '측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명사와 동사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이들 간의 의미상의 관련성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형태와 성조가 일치하고, 통사범주의 차이가 있으며,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5ㄱ), (5ㄴ)은 명사의 예이고, (5ㄷ), (5ㄹ)은 동사의 예이다.

다음은 '빗-빗다'의 예이다.

- (6) ㄱ. 靑溪엿 머릿터리 蕭蕭히 비새 하야히 비취엿더라 니르디 말라(莫話溪髮蕭蕭白喚梳) (두해 초 20: 45)
 ㄴ. 老夫 | 물곤 새배 센 머리물 빗다니 (두해 초 16: 32)
 ㄷ. 대 서늘흐니 머리물 비삼직 흐도다 (두해 초 20: 51)

명사 '빗'과 동사 '빗다'는 성조가 '평성'으로 일치하고 의미는 '梳'로 일치한다. 그런데 (6)의 예는 2.2에서 보았던 (1)의 예와 비교될 수 있다. 즉 (1)의 예는 앞의 2.2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명사와 동사의 어간 발음의 형태음소가 다른 것이다.

그러나 (6ㄱ)과 (6ㄴ), (6ㄷ)은 각각 명사 '빛'과 동사 '빛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1)의 '긋-긋다'와는 달리 어간 말음의 형태음소가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긋-긋다'는 소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빛-빛다'는 적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거리-거리다'의 예이다.

- (7) ㄱ. 福愛으로브터 두 거리 논호리라(從福愛호야 分二岐也 | 라) (능엄 9: 15)
 ㄴ. 陌은 저갯 가은뎃 거리라 (석보 19: 1)
 ㄷ. 이 天中을 브터 두 거린 길히 잇느니(從是天中호야 有二岐路호니) (능엄 9: 14)
 ㄹ. 가지 거리고 님 업스니라 (월석 8: 10)

(7)은 명사 '거리'와 동사 '거리다'의 영변화를 보여 주는 예이다. 성조는 '평거'로 일치하며 어간말음의 형태음소의 차이도 없다. 명사 '거리'는 '갈래, 갈림길'이라는 의미와 '거리'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 두 가지 명사의 의미 중에서 전자가 '갈라지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거리다'와 영변화의 관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사의 또 다른 의미는 의미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7ㄱ)은 '갈래'라는 뜻을 가지는 명사의 예이고, (7ㄴ)은 '거리'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의 예이다. (7ㄷ), (7ㄹ)은 모두 동사의 예이다. 동사 '거리다'는 다음 (8)에서와 같은 '가리다'와 모음교체에 의한 어휘 분화의 관계를 가지는데, '가리다'는 '거리다'와 달리 영변화의 명사 짝은 없다.

- (8) 가린 길홀 만나디 아니코져 호실씨(欲不遭枝岐) (능엄 1: 22)

3.1.2. 소극적인 영변화

'ㄱ물-ㄱ물다', '빔-빔다', '씩-씩다', '신-신다'는 성조의 차이로 인해 명사와 동사의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되는 예들이다. 이에 비해 '긋-긋다'는 명사와 동사의 성조는 서로 일치하지만 어간말음의 형태음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되는 예이고, '굴-굴다'는 명사와 동사의 성조도 서로 다르고 어간말음의 형태음소도 다르기 때문에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된다.

먼저 'ㄱ물-ㄱ물다'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9) ㄱ. 시미 기픈 므른 그믄래 아니 그츨썩(源遠之水 旱亦不竭) (용가 1: 1, 제2장)
 ㄴ. 그믄 難이어나 하거든 (석보 9: 33)
 ㄷ. 하다가 그믄라 비 아니 오는 짜히 잇거든 (월석 10: 84)
 ㄹ. 여러 히 닛위여 그믄니 (월석 2: 50)

‘그믄’과 ‘그믄다’는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고 명사와 동사로 통사범주상의 차이도 있으므로 영변화의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상의 조건으로 볼 때 명사 ‘그믄’과 동사 ‘그믄다’는 성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명사의 경우 성조는 ‘거평’ 혹은 ‘거거’로 실현되는데, (9ㄱ)은 명사 ‘그믄’의 성조가 ‘거평’으로, (9ㄴ)은 명사 ‘그믄’의 성조가 ‘거거’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명사의 성조가 ‘거평’과 ‘거거’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동사의 성조는 ‘거평’으로 실현된다. 따라서 ‘그믄-그믄다’는 명사와 동사 간에 성조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될 수 있다.

다음은 명사 ‘비’와 동사 ‘비다’의 예이다.

- (10) ㄱ. 비는 須彌山 곧호더 (월석 23: 79)
 ㄴ. 즉자히 다 먹고 손지 비물 몬 치와 (석보 24: 22)
 ㄷ. 胎生은 비야 날 씨오 (석보 19: 2)
 ㄹ. 女人이 男女를 나티 몰하야 비오져 求하리(若有女人이 未生男女하야 欲求孕者) (능엄 7: 55)

그런데 명사 ‘비’는 (10ㄱ), (10ㄴ)의 예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신체부위’를 가리키는 데 비해, 동사 ‘비다’는 (10ㄷ), (10ㄹ)에서 보듯이 ‘임태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비’의 명사와 동사가 그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임태하다’와 같은 의미는 특정한 신체부위인 ‘배’와 의미상으로 무관한 것은 아니므로 (10)에서 예로 든 명사 ‘비’와 동사 ‘비다’는 의미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사 ‘비’의 성조는 ‘거성’으로, 동사 ‘비다’의 성조는 ‘평성’으로 실현되므로 이들은 소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으로 파악한다.

다음은 ‘씩-씩다’의 예이다.

- (11) ㄱ. 딤 동 세 무슬 어더 씩로 어울워 미야 (월석 8: 99)
 ㄴ. 莽龍衣 衰龍袍에 寶玉帶 씩사(龍衣與衰袍 寶玉且橫腰) (용가 10: 44, 제111 장)

ㄷ. 낚치 들글와 직물 **찍오**(面帶塵灰) (남명 하: 18)

(11ㄱ)에 보이는 명사의 의미는 ‘띠’인 데 비해, (11ㄴ)에 보이는 동사 ‘찍다’는 ‘띠를 두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11ㄷ)의 동사 ‘찍다’는 ‘(얼굴에) 무엇인가를 조금 띠다(지나다)’의 의미를 가진다. 명사와의 의미적 관련성을 고려할 때, 동사의 기본적 의미는 (11ㄴ)과 같이 ‘띠를 두르다’이고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11ㄷ)과 같은 의미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명사 ‘찍’와 동사 ‘찍다’는 서로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사인 ‘찍’의 성조는 ‘거성’으로 실현되고, 동사 ‘찍다’의 성조는 ‘평성’으로 실현되므로 이들은 소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다음은 ‘신-신다’의 예이다.

(12) ㄱ. 신 신고 거러 다붓 서리에 오나다(步履到蓬蒿) (두해 초 7: 21)

ㄴ. 그 힐 현 草鞋를 신느니 (남명 상: 53)

명사의 의미가 ‘신’이고 동사의 의미는 ‘신을 신다’라는 점에서 명사와 동사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12)의 예에서 보이는 명사와 동사 간의 의미상의 차이는 해당되는 통사범주의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본다면 명사와 동사의 의미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명사 ‘신’은 ‘거성’으로, 동사 ‘신다’는 ‘상성’으로 실현되므로 ‘신 - 신다’의 예는 성조의 차이로 인해 명사와 동사의 소극적인 영변화의 예로 분류된다.

다음의 ‘긋-긋다’의 예는 앞의 2.2에서 영변화의 형태상의 기준을 논의하며 예로 제시한 바 있다.

(13) ㄱ. 伏羲 **긋** **긋** 사람 뵈며(伏羲 | 畫之^하야 以示人^하며) (법화 3: 156)

ㄴ. 字 **긋**글 모로매 고르고 正히 **긋**며(字^劃을 必^楷正^하며) (내훈 초 1: 26)

ㄷ. 소노로 三軍^아 양즈를 **긋**어 뵈닛다(手^劃三軍^勢) (두해 초 22: 33)

ㄹ. 글긋 **긋** **긋**글 모로매 반듯반듯이 正히 **긋**며(字^畫을 必^楷正^하며) (번소 8: 16)

ㅁ. 글긋 **긋**글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긋**며(字^畫을 必^楷正^하며) (소언 5: 96)

명사 ‘긋’과 동사 ‘긋다’는 의미가 ‘劃’으로 일치하며, 성조도 ‘평성’으로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명사 ‘긋’은 (13ㄱ)에서처럼 조사의 결합 없이 단독으로 나타

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13ㄴ), (13ㄷ)에서처럼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말음의 형태음소가 'ㅅ'으로 나타난다. 동사의 경우는 (13ㄷ)에서처럼 모음어미와 결합하는 경우에 동사어간의 말음은 'ㄷ'으로 나타난다. (13ㄷ)은 동사 '긋-'과 명사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한 예를 보여 주는데, 이 경우도 역시 동사어간의 말음 형태음소는 'ㄷ'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통사범주상의 차이와 의미상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긋-긋다'의 예는 성조의 일치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명사와 동사의 형태음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명사와 동사의 소극적인 영변화의 예로 분류한다.

다음의 예는 명사와 동사가 어간 말의 형태음소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조의 차이도 보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되는 예이다.

- (14) 가. 이 여섯 하늬 ㅈ자이 欲心을 못 여훤 한 굴비니 (월석 1: 32)
 나. 세 굴 甚히 기픈 詰難을 니르와드사(起三重甚深之難事) (원각 상 1-2: 70)
 다. 마릿 기리 몸과 굴보며 (월석 1: 26)
 리. 功夫 헝더기 부더의 굴건마론(功行이 固己侷佛건마론) (능엄 1: 37)

명사 '굴'은 '거성'으로, 동사 '굴-'은 '평성'으로 실현되어 성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명사 '굴'은 (14가)에서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 '굴'으로 나타나지만 동사 '굴-'은 (14다)의 예에서처럼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왔을 때 '굴-'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명사 '굴'과 동사 '굴-'은 성조와 어간말음의 형태음소가 다른 유형인 것이다. 의미상으로 볼 때, 명사 '굴'은 '겹'의 의미를 가지지만, 동사는 '竝, 敵'의 의미로서 '(비교의 대상과 어떠한 면이) 필적할 만하다, 겨루다, 나란히 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 예는 본고에서 영변화로 설명한 예들 중에 의미적 관련성이 가장 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어휘들이 '언급대상을 같은 층위에 놓고 있다'는 전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미적 관련성이 완전히 부인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사 '굴'과 동사 '굴-'도 명사와 동사의 소극적인 영변화로 파악한다.

3.2 동사와 부사의 영변화

동사와 부사의 영변화는 동사어간에서 부사가 영변화에 의해 나온 것으로 본다.¹⁴⁾ 이 유형은 형태적 조건에 따라 적극적인 영변화와 소극적인 영변화가 있다.

3.2.1. 적극적인 영변화

다음에 제시된 ‘거의다-거의’, ‘비롯다-비롯’, ‘지졸다-지졸’은 동사와 부사의 성조가 모두 ‘평거’로 일치하는 예이므로 적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된다.

- (15) ㄱ. 너비 濟度호물 거의 마츠면 (석보 11: 10)
 ㄴ. 하다가 能히 브즈러니 나사가면 오히려 어루 거의려니와 하다가 또 물러 디면(若能勳進하면 猶可庶幾어니와 設復退隨하면) (법화 3: 165)
 ㄷ. 夫人이 나하삼 돌 거의어늘 王의 슬벗사디 東山 구경하야지이다 (월석 2: 27)
- (16) ㄱ. 仲冬에 비롬과 히에 비롯 서늘호도다(仲冬風日始淒淒) (두해 초 14: 31)
 ㄴ. 처심 비롯는 거시 因이오 (석보 13: 41)
 ㄷ. 모르면 生死 | 비롯고 알면 輪廻 | 굿느니라(迷之하면 則生死 | 始하고 悟之하면 則輪廻 | 息호느니라) (원각 서: 4)
- (17) ㄱ. 거튼 들엿 봄 풀 비출 지졸 안조물 肯許하시면(肯籍荒庭春草色) (두해 초 21: 4)
 ㄴ. 머근 後에 生薑 두세 片으로 지졸 머그라(服後以薑數片壓之) (구방 하: 2)
 ㄷ. 몸과 마음과를 굿 눌러 들히 풀 지즈를 ㄴ티 하야(捺伏身心하야 如石壓草하야) (목우 25)

(15ㄱ)은 부사 ‘거의’의 예이고 (15ㄴ), (15ㄷ)은 동사 ‘거의다’의 예이다. (16

14) 다음의 예는 동사와 부사의 영변화로 다루어져 온 것이지만, 본고는 (1)에 보이는 ‘굴히 내’의 ‘굴히’가 부사가 아니고 동사 ‘굴히-’와 ‘내-’의 비통사적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영변화의 예로 다루지 않는다.

(1) 눈 위하야 굴히내 니르며 말다히 修行호느니싸녀 (석보 19: 8)

(1') 눈 爲하야 굴히야 니르며 말다히 修行호리싸녀(爲人分別하며 如說修行이싸녀) (법화 6: 15)

(2) 善惡을 굴히디 몰하야 (월석 21: 126)

그러나 (1)의 ‘굴히내’가 ‘굴히내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또다른 각도에서 추궁되어야 할 것이다.

ㄱ)은 부사 '비릿'의 예이고 (16ㄴ), (16ㄷ)은 동사 '비릿다'의 예이다. (17ㄱ), (17ㄴ)은 부사 '지졸'의 예이고 (17ㄷ)은 동사 '지졸다'의 예이다. 이들 예에서 동사와 부사는 모두 의미상의 관련성이 확인된다.

다음에 예로 든 '스뫼다-스뫼'은 문면에 실현되는 형태음소가 다른 듯이 생각될 수도 있다.

- (18) ㄱ. 안팓기 스뫼 물가 허므리 업고 (석보 9: 4)
 ㄴ. 通達은 스뫼출 씨라 (석보13: 4)
 ㄷ. 螺는 혼 소리로 다 스뫼고 (석보13: 26)

그러나 (18ㄱ)에서 부사가 '스뫼'으로 나타나고 (18ㄴ)에서 동사가 모음어미와 결합한 경우에 '스뫼-'으로 나타나는 것은 말음규칙에 의한 것이지 말음의 형태음소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사 '스뫼'과 동사 '스뫼다'는 말음의 형태음소가 같다고 본다. 또한 부사 '스뫼'과 동사 '스뫼다'는 성조가 '평평'으로 일치하며, 의미상의 관련성도 가지므로 동사와 부사의 적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된다. 이 예들은 의미상의 관련성도 가진다.

다음은 동사 '줏구리다'와 부사 '줏구리'의 예이다.

- (19) ㄱ. 더 주저미 무루피며 바리며 다 놀여 문득 줏구리 앓거늘 (월석 9: 36상)
 ㄴ. 흥 무적에 줏구리 걸안자(踳踳土埵하야) (법화 2: 118)
 ㄷ. 이 兜羅帝 能히 苦行하야 橋樓을 보려 쯤 무덧 우회 줏구리서 거를 구버 할낫다 (월석 9: 35하)

(19ㄱ)은 '줏구리다'와 '앓다'의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아니면 부사 '줏구리'가 동사 '앓다'를 수식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한다. 본고는 (19ㄴ)의 예에 서처럼 부사 '줏구리'가 '앓다'라는 동사 외에도 '걸앓다'라는 동사를 수식할 수 있으므로 '줏구리'를 부사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비통사적 합성어는 이처럼 비슷한 어휘와 두 번씩 결합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지지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19)의 부사 '줏구리'와 동사 '줏구리다'는 성조가 '평평'으로 일치하는 적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으로 본다.

다음은 '뻬다-뻬'의 예이다.

- (20) ㄱ. 뻬 아라 기튼 恨이 업스니(貫穿無遺恨) (두해 초 24: 37)

- 나. 소리에 구스리 **때오** 히미 常例人 一百 像두고 더 새며 (월석 1: 28)
 다. 또 너비 비화 **때며**(又博學以貫之호며) (능엄 1: 28)

이 예는 영변화의 통사적 조건, 의미적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며, 부사 '때'와 동사 '때다'¹⁵⁾의 성조가 '상성'으로 일치하므로 적극적인 영변화로 분류한다.

3.2.2. 소극적인 영변화

동사와 부사의 영변화의 예 중에서 성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되는 예는 '느외다-느외'와 '느리다-느리'가 있다.

먼저 '느외다-느외'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21) 가. 이 아로물 여회면 **느외** 잇는 거시 업스리니(離此覺知호면 更無所有호리니) (능엄 1: 86)
 나. 最後身은 못 後人 모미니 **느외** 죽사리 아니호야 (월석 1: 31)
 다. 이에 세 번 **느외**을 띠니라(宜三復于斯니라) (법화 5: 206)
 라. 병이 **느외**어든(病復發) (구간 1: 109)

이 예들은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고 통사범주상의 차이가 있으나 부사는 '평평'의 성조를 가지고 동사는 '평평'과 '거평'으로 나타나므로 이들은 소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다음은 '느리다-느리'의 예이다.

- (22) 가. 子孫은 아드리며 子孫이며 後人 孫子를 無數히 **느리** 낚은 마리라 (월석 1: 7)
 나. 又 업슨 디는 나뭇니픈 蕭蕭히 **느리**고(無邊落木蕭蕭下) (두해 초 10: 35)

부사는 '거거'의 성조를 가지고 동사는 '평거'의 성조를 가진다. (22가)의 '느리'를 동사 '느리다'에서 영변화된 부사로 보지 않고 동사 '느리-'와 '니르-'의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22가)의 '느리'는 '느리누르다, 느리짓다'의 '느리'와 비교해 볼 때 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느리누르다, 느리짓다'의 '느리'는 '공간상의 하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동사 '느리-'에 의한 비통

15) 동사 '때다'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모두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통용은 영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23ㄱ)은 부사 '그르'의 예이고, (23ㄴ)은 형용사 '그르다'의 예이다. (24ㄱ)은 부사 'ㄱ르'의 예이고, (24ㄴ)은 형용사 'ㄱ르다'의 예이다. '그르-그르다'와 'ㄱ르-ㄱ르다'의 예는 의미상의 관련성에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5)의 예는 의미상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5ㄱ), (25ㄴ)에 보이는 부사 '바르'의 의미는 '곧, 바로'이고, (25ㄷ), (25ㄹ)에 보이는 형용사 '바르다'는 '바르다, 곧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형용사 '바르다'와 부사 '바르'는 대부분 '直'을 번역한 것으로¹⁶⁾ '直'에는 '바르다, 바로잡는다, 바로, 곧'의 의미가 있다. 즉 형용사 '바르다'와 부사 '바르'는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아니라 '直'이 나타내는 개념을 표시한 것으로 서로 의미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3.3.2. 소극적인 영변화

형용사와 부사의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되는 예로서 '빠티르다-빠티르'와 '하다-하'가 있다. 이들은 형용사와 부사가 성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빠티르다-빠티르'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26) ㄱ. 주린 배 고기를 빠티르 먹디 못하야 놀겔 기우려 사르물 조차 느느니라
(飢麻未飽肉側廻隨人飛) (두해 초 22: 29)
ㄴ. 내 몬져 도한 차바느로 빠티르기 하교사 (석보 9: 9)
ㄷ. 그럴시 혼 적 빠티르다 니르시니라 (남명 상: 64)

부사 '빠티르'는 '거평평'의 성조로 실현되나, 형용사 '빠티르다'는 성조가 (26ㄷ)의 예처럼 '거평평'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26ㄴ)의 예처럼 '평평평'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사 '빠티르'와 형용사 '빠티르다'는 의미상의 관련성이 있으나 성조의 차이를 보이므로 소극적인 영변화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형용사 '하다'와 부사 '하'의 예이다.

- (27) ㄱ. 하 貴하야 비디 업스니라 (석보 13: 22)

16) 물론 (25ㄷ)에 보이는 형용사 '바르다'는 '𪛗'을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25ㄷ)의 '𪛗'은 '세르'라는 뜻을 지니므로 '直'의 의미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 ㄴ. 恭敬供養호스면 한 受苦 | 다 업고 (석보 9: 25)
 ㄷ. 또 千億 가지 이리 하니 이제 어들 날오리라 (석보 13: 18)
 ㄹ. 一生補處 | 하거시니 (월석 7: 58)

부사인 ‘하’는 항상 ‘거성’으로 나타나는 반면, 형용사인 ‘하다’는 뒤에 결합되는 선어말 어미의 종류에 따라 성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27ㄴ), (27ㄷ)에서 보이는 ‘한’, ‘하니’는 ‘평성’으로, (27ㄹ)의 ‘하거시니’는 ‘거성’으로 나타난다.¹⁷⁾ 형용사 ‘하다’가 뒤에 연결되는 어미에 따라 성조가 달라지지만 기본 성조는 ‘평성’으로 볼 수 있다는 김완진(1977)의 논의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부사의 성조는 ‘거성’으로 실현되고, 형용사의 성조는 ‘평성’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다 하’는 성조가 다른 영변화의 예이다. 따라서 형용사 ‘하다’와 부사 ‘하’는 형용사와 부사의 소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3.4.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¹⁸⁾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를 논의할 때, 가장 문제가 되어 온 것은 시간의 개념과 장소의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들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명사들에 대한 해석은 부사로 영변화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¹⁹⁾와 원래 명사인 것이 처격조사의 생략에 의해서 단독으로 부사어로 사용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²⁰⁾ 하지만 명사와 부사

17) 김완진(1977: 58)에 의하면 형용사 ‘하다’의 성조는 ‘-올/을, -으리/으리, -은/은, -으니/으니, -으며/으며, -고, -다, -게’ 등의 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 ‘-으시/으시-, -는-, -습-, -아/어-’ 등의 어미 앞에서는 ‘거성’으로 실현된다고 한다.

18)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는 다른 유형의 영변화와 달리 소극적인 영변화의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명사와 부사가 변화하지 않는 범주라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에 적극적인 유형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조의 변화를 형태의 변화와 동일시하는 본고의 논의에 긍정적인 암시인 것으로 생각된다.

19) 현대국어론 대상으로 송철의(1992)는 시간명사들과 장소명사들이 생산적으로 영접사파생에 의해 부사로 된다고 한다. 기주연(1994)도 근대국어론 대상으로 이 명사들이 영접사파생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 이현희(1995: 535~539)는 시간이나 장소의 개념을 가지면서 하향적 이중모음의 ‘j’로 끝나는 것들에는 처격조사의 통합이 저지된다는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그 예로 ‘그제, 이제, 어디’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르’말음을 가지는 어휘 중에서 ‘오늘, 來日’ 등은 처격조사 ‘-애’의 통합이 필수적으로 저지되고 있다고 한다. 김창섭(1990)은 현대국어론 대상

의 영변화에 대한 논의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처격조사의 생략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언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본고는 시간개념이나 장소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다른 명사들에 비해서 처격조사가 생략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러므로 본고의 논의에서 이와 관련된 예들은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다만 ‘ㄹ장’, ‘아니’, ‘치삼’ 등의 예는 시간 개념이나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와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다음에 예를 제시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ㄹ장’이 명사와 부사로 쓰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28) ㄱ. 미슴다보물 닐웁 ㄹ장 귀지하야(期致盡心하야) (월석 서: 20)
 ㄴ. 이 여섯 하늬 ㄹ자이 欲心을 문 여윈 혼 굴비니 (월석 1: 32)
 ㄷ. 正心 信心을 ㄹ장 發하야 一切 世間엿 미슴물 ㄹ장 버리고(發盡正信心하야 捨盡 一切世間心하고) (몽산 23)
 ㄹ. 보빅와 또 집과 一切 천량 ㄹ장 얻고 ㄹ장 것거(大獲珍寶와 井及舍宅과 一切 財物하고 甚大歡喜하야) (법화 2: 245)
 ㅁ. 旋嵐風은 ㄹ장 리븐 버리미라 (석보 6: 30)

명사 ‘ㄹ장’은 ‘끝까지, 만큼, 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부사 ‘ㄹ장’은 ‘한껏, 충분히, 크게’의 의미와 ‘가장, 매우’의 의미를 가진다. 부사의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사와 부사의 의미를 고려할 때 (28ㄱ), (28ㄴ)의 예에서 보이는 명사와 영변화 관계에 있는 것은 (28ㄷ), (28ㄹ)의 ‘한껏, 충분히, 크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8ㅁ)의 ‘가장, 매우’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는 ‘한껏, 충분히, 크게’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에서 의미가 확장된 용법으로 볼 수 있다. 부사 ‘ㄹ장’의 의미가 이처럼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은 명사와 구별되는 또다른 품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28)에 예로 든 ‘ㄹ장’은 명사에서 부사로 영변화된 예로서 명사와 부사의 두 가지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사 ‘ㄹ장’과 부사 ‘ㄹ장’의 성조는 ‘평거’로 서로 일치하므로 이들은

으로 이러한 명사들이 영파생에 의해 부사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품사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거나, 통시적인 군음 또는 초월언어적 인용의 결과나 생략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예들이라고 한다.

명사와 부사의 적극적인 영변화로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아니’와 ‘처شم’이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앞서 예로 든 ‘그장’이 부사의 경우에 명사와는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니’와 ‘처شم’은 명사와 부사 간에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먼저 ‘아니’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니’가 명사로서의 용법과 부사로서의 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논의가 되어 왔다.²¹⁾

(29) ㄱ. 이 들히 들 아니를 일후미 空相이라 ㅎ시니라(是二 | 不二를 名爲空相이라 ㅎ시니라) (반야 38)

ㄴ. 네 信 ㅎ는다 아니 信 ㅎ는다 (석보 9: 26)

(29ㄱ)은 명사 ‘아니’의 예이고, (29ㄴ)은 부사 ‘아니’의 예이다. 이들의 성조는 ‘평거’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아니’는 명사와 부사의 적극적인 영변화의 예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처شم’이 명사와 부사로 쓰인 예들이다. 앞서의 논의에서 시간개념들을 나타내는 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예들을 처격조사의 생략에 의한 명사로 보았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 조사 생략의 조건이 비슷한 어휘들이 있었다. 그러나 ‘처شم’의 경우는 조사 생략의 예로 볼 수 있는 이와 비슷한 조건의 어휘들이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에 의한 어휘로 보기로 한다.

(30) ㄱ. 劫 처شم의 사름미 ㅈ 마술 먹다가 (석보 9: 19)

ㄴ. 처شم ㅈ츠물 알리 노니 (석보 서: 2)

ㄷ. 方等 처شم 니르사미 부텃 나히 마순들허러시니 (석보 6: 45)

(30ㄱ)은 명사 ‘처شم’이 조사와 결합한 경우이고, (30ㄴ)은 ‘처شم’이 명사형과 함께 명사구를 이룬 예이다. (30ㄱ), (30ㄴ)에서 보이는 명사 ‘처شم’의 의미는 ‘특정한 때’를 나타낸다고 보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30ㄷ)은 부사로 쓰이는 ‘처شم’의 예인데, 명사와 마찬가지로 ‘순서’의 의미를 지닌다. 명사로 쓰이는 경우와 부사로 쓰이는 경우 모두 성조는 ‘거평’으로 일치한다. 그러므로 ‘처شم’도 적극적인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 예로 본다.

21) ‘아니’의 체언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안병희(1959)에서 논의된 바 있다.

3.5. 명사, 관형사와 부사의 영변화

명사, 관형사와 부사의 영변화는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와 유사한 것으로 본다. 명사와 관형사는 2.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으므로 영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품사의 통용이라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3.5에서 다루고자 하는 명사, 관형사, 부사의 영변화의 예들은 세 품사 간의 영변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3.4의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와 비슷한 것으로 보려고 한다. 명사, 관형사, 부사의 예들을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와 비슷한 유형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장을 달리하여 다루는 것은 이들이 관형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3.4에서 다루어진 명사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먼저 ‘므슴’의 예를 보기로 한다.

- (31) ㄱ. 세간(世間)스 드를을 므슴만 너기시리 (월곡 125)
 ㄴ. 일로 해여 보견텐 므슴 慈悲 거시거노 호고 (석보 6: 6)
 ㄷ. 信을 因하야 이룰 값간 호노니 나뉘닐 다시 므슴 퍼리오(因信하야 略此 호노니 餘更何申이리오) (선집 하: 128)

(31ㄱ)은 ‘므슴’이 명사로 쓰이는 예이고, (31ㄴ)은 관형사로 쓰이는 예이며, (31ㄷ)은 부사로 쓰이는 예이다. ‘므슴’은 의문대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명사, 관형사, 부사 간의 의미의 차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각각의 예에서 ‘므슴’의 성조는 ‘평거’로 일정하다. 따라서 이들은 명사와 부사의 적극적인 영변화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새’가 명사, 관형사, 부사의 예로 쓰이는 예이다.

- (32) ㄱ. 이 나래 새를 맛보고(此日嘗新) (두해 초 15: 23)
 ㄴ. 일후미 새와 놀가니와 어즈러운 想이니(名新故亂想이니) (능엄 7: 83)
 ㄷ. 새 구스리 나며 (월석 1: 27)
 ㄹ. 새 비호는 ㅼ들 어즈리디 말 ㅼ오 (월석 10: 20)
 ㅁ. 새로 스투물 여들 字를 밍ᄃ노니(新制二十八字호노니) (훈민 2~3)

(32ㄱ), (32ㄴ)은 명사로 쓰이는 ‘새’의 예이고, (32ㄷ)은 관형사로 쓰이는 예이며, (32ㄹ)은 부사로 쓰이는 예이다. (32ㅁ)의 ‘새로’는 명사 ‘새’와 조사 ‘-로’

의 결합에 의한 부사어인데, 부사 '새'와 함께 '새로'라는 부사어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31)의 '므슴'과 마찬가지로 '새'는 세 가지의 쓰임에서 의미의 차이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인 '새'의 성조는 모두 '거성'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새'는 명사와 부사의 적극적인 영변화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어느'의 예이다.

(33) ㄱ. 이 두 말을 어늘 從從하시려뇨 (월석 7: 26, 월곡 197)

ㄴ. 菩薩이 어느 나라해 느리시게 하려뇨 (월석 2: 10)

ㄷ. 부텃 法이 精微하야 저몬 아히 어느 듣즈보리잇고 (석보 6: 11)

(33ㄱ)은 '어느'가 명사로 쓰인 예이고, (33ㄴ)은 관형사로, (33ㄷ)은 부사로 쓰인 예이다. 명사와 관형사로 쓰인 '어느'는 의미상의 차이가 그다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부사로 쓰인 '어느'는 '어찌'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어느'는 '어누'와 모음교체에 의한 어휘분화를 보이는데, '어누'는 '어느'와 달리 관형사와 부사의 예만을 보이지만 성조는 '평거'로 서로 일치한다.

(34) ㄱ. 물즈보더 어느 나라해 가샤 나시리잇고 (월석 2: 11)

ㄴ. 물즈보더 엇대 하마 다온 목수미 어느 더으리잇고 (석보 9: 35)

(34ㄱ)은 '어누'가 관형사로 쓰인 예이고, (34ㄴ)은 부사로 쓰인 예이다. '어누'가 관형사와 부사의 용법만을 보인다는 점 때문에 이 어휘를 관형사와 부사의 영변화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생각된다. '어누'가 명사로서 쓰인 예가 아직 발견되지 못한 것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같은 시기에 보이는 '어느'와 '어누'의 쓰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명사와 관형사의 통용에 대한 하나의 암시라고 보고자 한다. 즉 명사와 관형사의 통용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어느'는 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인 경우에 모두 성조가 '평거'로 나타나므로 명사와 부사의 적극적인 영변화로 볼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15세기 국어의 영변화의 예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영변화의 유형을 '명사와 동사의 영변화', '동사와 부사의 영변화', '형용사와 부사의 영변화',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로 나누고 이를 각각 적극적인 영변화와 소극적인 영변화로 나누어 보았다. '명사, 관형사와 부사의 영변화'를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와 장을 달리 하여 기술하였는데, 이는 관형사를 영변화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명사가 관형사와 통용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여 논의한 것이었다. '명사와 부사의 영변화'에는 다른 유형의 영변화와는 달리 적극적인 유형의 영변화만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범주의 특징과 관련된다는 언급도 하였다.

본고는 기존의 논의에서 전제되어 온 영변화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이전의 논의보다 좀더 정밀화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2에서 논의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통사적 조건**: 대통사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단어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간의 변화만을 인정한다.
- ②**의미적 조건**: 의미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③**형태적 조건**: 형태와 성조가 일치하는 유형은 '적극적인 영변화'로, 어간 말음의 형태음소가 다른 유형이나 성조가 다른 유형은 '소극적인 영변화'로 파악한다.

본고는 영변화가 발생하는 범주를 '명사, 동사(형용사), 부사'의 셋으로 한정하고 관형사는 여기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는 단어형성 과정에 참여하는가의 여부에 의한 것이었다. 관형사와 관련된 본고의 논의는 미진한 점이 없지 않으나 관형사를 단어형성의 어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논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명사와 관형사의 영변화로 논의되어 온 예들과 관련하여 본고는 이들을 명사와 관형사의 통용이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언급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는 명사와 관형사의 공통 특성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와 조사 생략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더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고의 논의에서 가장 부족한 점은 무엇보다도 영변화의 방향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문제는 가장 언급하기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영변화의 방향에 대한 확실한 논거가 없는 현재로서는 일단 일반적인 단어형성 과정의 흐름과 영변화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언급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15세기의 국어만을 대상으로 영변화에 대해 논의하였기 때문에 논의가 거친 점이 없지 않다. 새로운 단어의 생성은 공식적인 현상만을 대상으로 논의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예로 든 어휘들이 15세기 이전과 15세기 이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각 어휘들의 개별적인 통시태에 대한 고려가 좀더 있었다면 영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물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또한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_____(1993), 《우리말의 총체서술과 문법체계》, 일지사.
 구본관(1996),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기주연(1994), 《근대국어 조어론 연구(1)》, 태학사.
 김성규(1994), <중세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완진(1997), 《중세국어 성조의 연구》, 탑출판사.
 김창섭(1990), <영파생과 의미전이>, 《주시경학보》 5.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탑출판사.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심재기(1990), 《국어어휘론》, 집문당.
- 안병희(1959), <중기어의 부정어 '아니'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0, 국어
국문학회 (《국어사 연구》, 문학과지성사, 1992에 <중세국어의 부
정어 '아니'>라는 제목으로 재록됨).
- _____(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양정호(1991), <중세 국어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연구》 105.
- 유창돈(1964), 《이조어 사전》, 연세대출판부.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승욱(1967), <중기국어의 부사연구>, 《단국대논문집》 1.
- _____(1974), <동사어간 형태소의 발달에 대하여>, 《진단학보》 38.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형태》, 태학사, 1993에 재록됨).
- 이익섭·임홍빈(1994),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_____(1994), <'두시언해' 권9, 강독자료>, 유인물, 1994.
- _____(1995), <'-'과 '-沙'>, 《한일어학논총》, 국학자료원.
- _____(1996), 《중세국어 부사 '도로'와 '너무'의 내적 구조》,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전상범(1995), 《형태론》, 한신문화사.
-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 하치근(1989), 《국어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 홍기문(1947), 《조선문법 연구》, 서울신문사.
- Bauer, L.(1983), *English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pencer, A.(1991), *Morphological Theory : An Introduction to
Word Structure in Generative Grammar*, Basil Blackwell.